



결과자료집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2021년도 어느새 마지막 달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달려온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중랑구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온 중랑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문화적 소외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요즘,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그 어떤 예술활동보다 효과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히거나 멈춰진 감정을 긍정적 소통 방법으로 위로하는 1:1 예술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가 직접 테이블을 들고 참여자를 찾아가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명랑중랑>이 걸어온 1년, 잦은 멈춤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제 마무리의 걸음을 밟아봅니다. 저희와 함께 기꺼이 테이블을 들고 400여 명의 참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준 예술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중랑문화재단과 함께해주신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한길지역아동센터,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랑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펼쳐며 침체된 구민들의 일상이 차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유경애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현장형 예술체험 문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중랑문화재단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던 한 해였지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현장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시기에 문화의 소외계층들은 특히나 더 많은 문화적 살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예술테이블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중랑문화재단에서는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더 했고, 그 덕분에 외로운 마음을 두드리는 <명랑중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상하반기에 걸쳐 총 8회의 예술테이블 사업을 진행했고, 중랑구 곳곳의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명랑중랑>은 10여 명의 작가가 각자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처럼 찾아오는 단 한 명의 일반인들과 30여 분씩 마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작가에게 털어놓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그림이나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고 작은 결과물들은 선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 치료적 효과가 높았던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문화적 효과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장이나 전시장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경험 정도에 불과하지만 <명랑중랑> 테이블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테이블을 들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이 중랑구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 가는지 천천히, 오래오래, 자세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로드맵

2021년 3월

-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21년 4월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6월

-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2021년 9월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10월

-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2021년 11월

- 열린지역아동센터

- 한길지역아동센터

-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중랑구 관내 곳곳을 예술가가 직접 찾아가 참여자와 1:1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랑문화재단의 대표 사업입니다. 예술가와 참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작업하며 문화예술로부터 더욱 멀어진 요즘,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명랑중랑>의 예술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직접 기관으로 테이블을 들고 찾아온 예술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참여자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술가가 외로울 때 힘이 되는 인형을 만들어주고, 참여자가 인생을 맛에 비유한 글을 남기는 동안 예술가가 달고나를 만들어 주는 등 참여자와 예술가가 서로 소통하며 치유의 경험을 함께하는 독특하고 친밀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들 한 명 한 명의 삶 자체를 어루만지는 소규모 맞춤형 예술체험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자와 예술가와 나누는 경험의 밀도가 매우 높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더 많은 기관을 찾아가 더 많은 구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 04.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경

8개의 공간

335명의 참여자



찾아가는 프로그램



- | | |
|--------------------------|-------------------------|
| 게임의 법칙 이재환 | 여기역기 이재아 |
| 지나간 하루를 삽니다 박근희 | 모난돌과 버려진 꽃잎 임정서 |
| 해와 달의 정상회담 이율리 | 수호환수 제작소 정진호 |
| 외로운 새벽이 김은진 | 알록달록 컵받침 만들기 조제인 |
| 사소한 치수-손가락 기념비 임플 | 시간에나 김인경 |
| 병맛캐리 송승욱 | 손수건 그림책 한장 최은별 |
| 상징주의 데스크 아님 | 라디오 줄리 김지혜 |
| 인생은 달고나 공미선 | 부치지 않을 편지 심민선 |
| 수작걸다 가든 | 토닥여행사 정은 |
| 마음의 병 솜수프 | 당신을 부탁하는 설명서 이은혜 |
| 우주삼라한숨상 조제인 | . |
| 메아리 프르크 | . |
| 양모펠트 이야기 워크숍 강민아 | . |

Part 1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시설이다.

서울 내에 144곳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나 이 중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5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조은세상 회원의 대다수는 타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시설 내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없다. 첫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랑문화재단과 진행하게 된 것이다.

- 진행 일자** 2021년 3월 30일 10:30 ~ 17:00
- 진행 장소**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진행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회원 40여 명
- 진행 프로그램** 인생은 달고나, 외로운 새벽이, 게임의 법칙 등

현장 INTERVIEW

- 조은세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원장 박정식

Q. 어떻게 <명랑중랑>과 함께해주시 수 있었나요?

A.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없고 특히 이런 문화 활동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랑문화재단에서 찾아와주셔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집단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개인별로 이렇게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서 회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주시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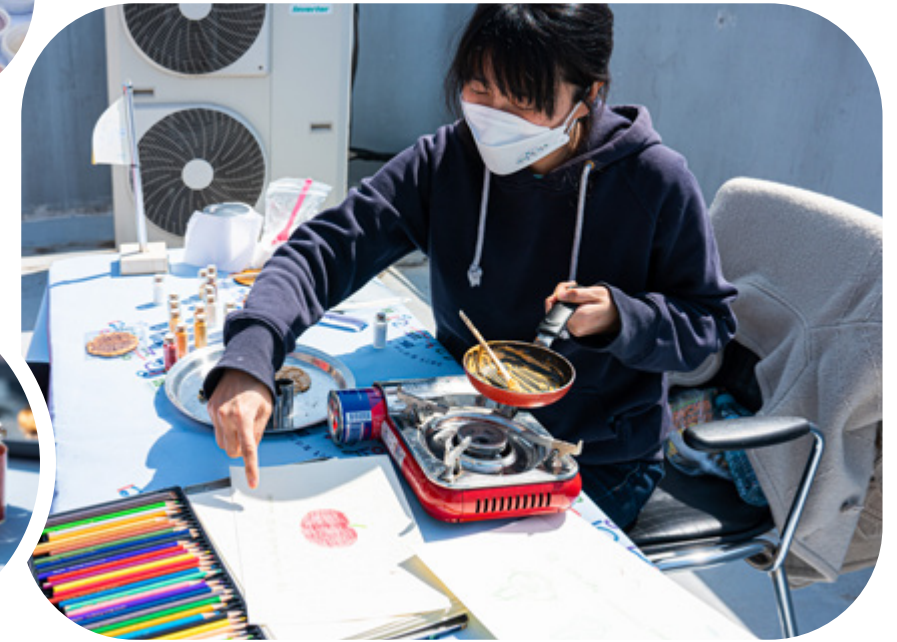
A. 장애가 없는 분들도 직장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많은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랑구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행 프로그램

인생은 달고나

달고나에 수상한 첨가물을 넣어 새로운 맛의 달고나를 만들어 준다. 달고나가 만들어지는 동안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맛에 비유한 글을 남긴다.



"그 어느 만남보다 순수하고 즐거운 관계의 형성"

매일 반복되는 일상만큼이나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는 아주 좁고 한정적이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걱정과 기대감이 뒤엉켰다. 하지만 <명랑중랑> 행사 당일 프로그램이 펼쳐지자마자 나와 참여자 사이에는 그 어느 만남보다 순수하고 즐거운 관계가 형성되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반짝이는 눈을 하고 나의 달고나를 맛보고 즐거워했다. 또한 나는 달고나를 만들어 주는 대신 참여자 자신의 삶을 맛에 비유한 글을 받고 있는데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내가 가지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그 대신 그들은 나와 가까운 곳이 있는 이웃이고 친구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끝으로 이 예술체험을 공유하며 참여자보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더욱 새롭고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한 것 같아나 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테이블 작가-공미선



게임의 법칙

어디서 온지 모르는 우리의 사이에
어디로 될지 모르는 놀이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의 긴장감으로
당신과 나의 놀이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도구를 이용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즐기는
본격 친목 도모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과 외로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외로운가요? 외로울 때 무엇을 하나요?
당신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외로울 때 힘이 되는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새벽이



Part 2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내동 신내공원 입구에 위치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 10월에 건립된 노인 복지 기관이다. 중랑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진행 일자** 2021년 4월 13일 10:30 ~ 17:00
- 진행 장소**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 진행 대상**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회원 40여 명
- 진행 프로그램** 마음의 병, 우주삼라한숨상 등



현장 INTERVIEW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Q.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A. 노인들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지루해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해 보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해주신 예술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꼭 하고 싶습니다.

Q.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된다면 또 참여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A. 이런 프로그램이 종종 있으면 노인들한테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젊은 분들과 대화를 하니깐 젊어진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재단에서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프로그램

마음의 병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진 행복했던 추억, 잊고 싶은 기억들을 '마음의 병'에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유리병에 담습니다. 막연해도 괜찮습니다. 말이나 글 대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첫 숨, 첫 돌을 맞이한 아이처럼 손을 뻗어보세요. 부드러운 숨은 봄날의 설레던 따뜻함을, 부러진 나뭇가지는 시험 치기 전의 두려움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아니면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담아도 좋아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작은 틈이나마 나의 시간, 나의 우주를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돌 같은 마음,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마음을 만난 시간"



마음의 병에 마음을 담으려면 스스로 말을 거는 힘이 필요하다. 이날 마주한 참여자들은 외로움, 미안함, 소망을 떠올리며 마음이 가는 대로 자연물을 골라 마음의 병에 담았다.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 '단단한 돌 같은 마음'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마음'으로 표현했다. 마음이 돌덩이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을 꺼내어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테이블 작가 - 솜수프(강민아)

우주삼라한숨상

이따금 나오는 한숨의 이유가 비슷하지만, 또 다르겠지요.
우주 삼라만상처럼 모두가 같고도 다르게 쉬게 되는 한숨에 대한 이야기를 주무르고 터트리고 건져 올려봅니다.
저와 마주한 시간을 통해 '한숨(답답한 감정)'이 '한숨' 자고 가는 십이 되길 바라봅니다.



Part 3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는 2018년도 3월 건립된 중랑구의 노인복지기관이다. 중랑구 어르신
의 자발적 참여와 노인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어르신 문화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자 중랑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차에는 특별히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다.

진행 일자 2021년 6월 24일 10:30 ~ 17:00

진행 장소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진행 대상 경로복지센터 노인 회원 40여 명

진행 프로그램 해와 달의 정상회담, 메아리 등

현장 INTERVIEW

-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참여자

Q.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지셨나요?

A. 어른들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진행 프로그램

해와 달의 정상회담

한 공간(하나의 평면 종이)에서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화담을 나눈다. 주제가 없는 이유는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존재는 대면하고 살피고 충돌하고 반응 할 테다. 그 흔적은 그림이 된다. 서로에게 접촉해서 이 종이에서 시간을 보내 보기로 하는 약속만이 필요하다. 참여 시간은 최소 15분. (버얼건 대낮 비언어적 모드가 열리려면 필요한 최소 워밍업 시간) 대화처럼, 체스처럼, 탁구처럼 번갈아가면서 그린다. 상대방이 그림을 그릴 땐 유심히 본다. 응답한다. 주고받는 발화發畵. 무엇을 나누게 될지 모르고 용기 내어 본 만남, 어떤 꼴일까?



"나 그림 못 그려요~" 하시며 작업대에 앉으셔서 알 수 없는 그림을 하염없이 주고받으신 경험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추억하실까?"

<해와 달의 정상회담>은 참여자와 작가가 마주앉아 무언의 상태로 그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게 된다. 역할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자아를 가로질러 '마음 대 마음', '존재 대 존재', '느낌 대 느낌'으로 타인과 만나보는 경험을 의도한 것이다.

예전 미술 강사로 노인분들과 수업을 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 때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번 찾아가는 예술테이블은 작업자가 참여자에게 시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 중요했다. 서로를 '노인', '작가 혹은 선생님'(어르신들이 선생님이라 부르시니)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존재에 집중해서 '쌍방'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았다.

그림 대화를 마치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 말로 대화한다. 이때의 대화는 겉돌지 않았다. 나는 어르신들의 서사보다, 우리가 함께한 경험에 대한 진솔한 마음 반응을 듣는 것이 그분을 제대로 만난 느낌이다. '나 그림 못 그려요~' 하시며 작업대에 앉으셔서 알 수 없는 그림을 하염없이 주고받으신 경험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추억하실까? 궁금하다.

테이블 작가 - 이율리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메아리

쓸모없게 된 직물을 얇게 자르거나 찢어서 끈을 꼬아주시면 노랫소리를 드립니다.
 끈은 물을 상징, 함께 꼬거나 말며 흐르게 두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닳은 짙은 빛의 물줄기 같은 노랫소리를(자작곡) 선물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준비된 종이에 그림, 시, 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메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Part 4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건립되어 중랑구 내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중랑문화재단은 지난 7월 6일 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MOU를 체결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을 협력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회차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복지관 회원 가운데 주로 우울감이 높은 고령의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계층의 문화 소외가 늘어나는 요즘, '코로나블루' 치유에 주력하는 사업으로서 <명랑중랑>은 큰 의미가 있다.

- 진행 일자** 2021년 9월 3일 10:30 ~ 17:00
- 진행 장소**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진행 대상**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회원 30여 명
- 진행 프로그램** 수작걸다, 여기저기, 수호환수 제작소 등



현장 INTERVIEW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Q. <명랑중랑>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A. 37년생 올해 85세입니다. 내가 살면서 최고로 즐거운 날이 오늘이야.(웃음) 치료도 해주고 꽃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

A. 오늘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생전 처음으로 꽃을 만들어봤네요. 집에 걸어놓고 아들들한테 자랑할거야. 즐거웠습니다.

A. 면목 7동사는 81세입니다. 오늘 노인들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 프로그램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진행 프로그램

수작걸다

작가는 참여자와 이야기하면서 생긴 인상과 느낌을 이미지로 만들어 참여자의 옷이나 가방 등 원하는 곳에 자수를 놓아준다. 참여자는 작가가 자수를 놓는 동안 앞에 놓인 천에 그 시간만큼 자수를 놓는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즐거워하는 어른과 새로운 예술의 첫 경험으로 설레는 아이를 만나다"

지난 여름부터 <명랑중랑> 프로그램을 함께 이어오면서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드물고 특별한 계기였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물리적으로 바늘을 사용하고 실을 꿰는 등 대단하지는 않지만, 아이나 노인에게는 긴 시간 집중하는 매우 피로한 작업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즐거워하는 어른과 새로운 예술의 첫 경험으로 설레는 아이, 두 세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는 제게는 매번 새로운 스승을 만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지나간 인생 끝에서 만나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만나는 배움이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는 도전 정신과 편견과 관념이 없는 배움을 위한 인내심, 아이들의 사회에 대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선물하는 자수를 받을 때의 표정에 담긴 감정과 인사에 모든 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손안에 제 자수가 항상 함께 할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수작-걸다'는 손으로 작업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제가 수작을 거는 것입니다. 저의 수작에 재미있고 따뜻하고 털어내고 싶었던 비밀을 열어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술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테이블 작가-가든

여기역기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작가는 주변 식물의 가지와 넝쿨, 잎사귀 등 자연물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소지품과 이야기를 엮어 그 사람만의 화관을 만들어 준다.



이번 회차의 인기 프로그램은 '여기역기'였다. 참여자의 인생을 녹여낸 화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가슴 저릿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난생 처음 써본다는 화관을 쓰고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얼굴.

수호환수 제작소

고대의 신화와 신화 속 동물, 세계 역사, 진화론 등을 주체적으로 연구, 재조합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창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상상의 동물이나, 꿈에서 봤던 동물을 그려주세요. 저는 당신을 보호해줄 환상의 동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창조된 수호환수는 당신을 지켜주고, 짝꿍이 되는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Part 5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하반기 운영의 첫 시작을 함께한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2014년 건립된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이다. 꾸준히 중랑구 내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병설데이케어센터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운영한 이번 회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중랑문화재단과 손잡고 중랑구의 노인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테이블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려 좀 더 많은 구민에게 자기 소통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진행 일자 2021년 10월 1일 10:30 ~ 17:00

진행 장소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진행 대상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회원 50여 명

진행 프로그램 지나간 하루를 삽니다, 알록달록 컵받침 만들기, 상징주의 데스크 등

현장 INTERVIEW

-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참여자

Q. 오늘 <명랑중랑>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A.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처럼만에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이게 다 어렸을 적에 소녀시절에 하던 건데 이렇게 늙어서 해보니까 새삼스럽고 좋았습니다. 요새 노인 인구가 많이 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복지관에 와서 경험할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진행 프로그램

지나간 하루를 삽니다

누군가의 하루에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그날에 대해 아기새처럼 이야기하고 그림일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는 상상합니다.

우리, 그 간격의 풍경을 느끼며 나는 즉흥시로 당신의 하루를 삽니다.

지나간 하루와 지나갈 하루는, 내뽕개쳤던 그 어느 날의 오늘로 다시 이어져 내일로 갑니다.



"어쩌면 이미 일상 예술가일지도 모를 어르신들을 만난다는 것"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가 용마산 자락길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명랑중랑>과 함께하며 낯설었던 중랑구가 조금은 익숙해진 듯하다. 아마도 떠올릴 기억이 있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낯은 책처럼 보이는 내 작업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시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는지, 어제 일처럼 선명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또 몇몇 어르신들은 한글을 배우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했다. 읽고 쓰는 것에 떨려 하시던 그 몸짓. 쭉스러운 내색이 표정을 타고 흐르셨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 경험에 용기를 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나는 그런 짧은 생각도 해 보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예술가의 나이를 스쳐간, 어쩌면 이미 일상 예술가일지도 모를 그분들의 면면을 낯선 이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주 앉는다는 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니까.

테이블 작가 - 박근희



알록달록 컵받침 만들기

내 취향을 꼭꼭 눌러 만든 하나뿐인 컵받침 만들기!
준비된 나무 위에 반짝이는 색 유리를 붙여
좋아하는 차를 마실 때 함께 할 티코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상징주의 데스크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마음을 모아 직관과 이끌림, 우연과 별의 이야기를
통과한 하나의 단면도를 추출해
개인적인 엠블럼을 만들어 드립니다.



Part 6

열린지역아동센터

그동안 장애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대다수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중랑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자기 소통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1월 8일 운영을 함께한 열린지역아동센터는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다수 찾는 지역사회 밀착형 아동복지시설이다. <명랑중랑>처럼 아동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에 관심을 두고, 지역 아동의 문화 사각지대를 좁히고자 하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행 일자	2021년 11월 8일 14:00 ~ 17:00
진행 장소	열린지역아동센터
진행 대상	열린지역아동센터 회원 및 직원 30여 명
진행 프로그램	모난 돌과 버려진 꽃잎, 손수건 그림책 한장, 양모펠트 이야기 워크숍, 사소한 치수 등



현장 INTERVIEW

- 열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신상규

Q.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A. 저희 센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예술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10개의 프로그램들 속에 다양각색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예술 경험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행 프로그램

모난 돌과 버려진 꽃잎

친구에게는 위로를 건네면서 정작 돌아보지 못 한 내 마음을 살피봅니다. 모난 돌을 보고 누군가 내게 한 상처가 된 말을 글로 적어봅니다. 꽃잎 카드를 골라, 그 상처에 내게 필요한 위로를 적어 나에게 선물합니다.



"마음과 닮은 작은 돌로 슬픔을 어루만지는 시간"

'모난 돌과 버려진 꽃잎' 작업은 만나자마자 속상하거나 화난 마음을 묻는다. 성인 대상으로만 해오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본인의 마음과 닮은 돌을 골라 눈을 붙여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형태로 조금 바뀌 진행했다. 한 아이가 속상한 마음이 차올랐는지 울먹이며 돌을 골랐다. 그 친구는 말없이 눈물만 흘쩍 흘쩍 흘렸는데 나도 그에 더 묻지 않았다. "속상한 마음이 있었나 보구나. 이 돌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네가 속상할 때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어줄까?" 라고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 친구는 적지 않고 가고 싶다고 했다.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속상한 마음을 이제 이 돌멩이가 들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 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작가-임정서



양모펠트 이야기 워크숍

'어린 시절 나를 만나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모 펠트로 함께 만들어 봅니다.
 양털을 바늘로 콕콕콕 찌르다 보면 어느새 손으로 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양털의 촉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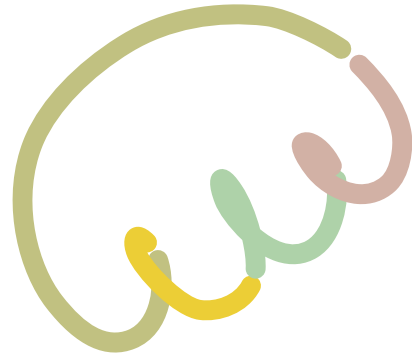
손수건 그림책 한장

'그림책 한 장' 이야기는 손수건 위에 만들어 내는 그림이다.
 참여자가 이미 완성된 앞장의 이야기를 듣고 릴레이로 다음 장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미지 도장을 활용하여 앞장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덧댄다.
 이야기 소재가 없으면 몰래 단어카드를 꺼내어 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져도 좋다.
 이 이야기는 정해진 글 없이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이야기다.



사소한 치수 손가락 기념비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를 수집합니다.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며 저마다 손가락 한마디 마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합니다. 상처, 주름들 사이에 숨겨둔 사연들을 예술가에게 들려주고 석고로 그 모습을 본 떠 손가락 기념비로 교환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대단해지는 시간"



사람들의 손을 들여다보는 것은 즐겁다. 각자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손은 자신을 닮는다. 종량구에서도 많은 손을 만났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 피아노를 오래 쳤던 손,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손, 독특한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손, 부끄러운 손, 가느다랗고 차가운 손, 파르르 떨리는 손 등 손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져다주기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지난 손가락의 기억들. 각기 다른 손가락 한 마디를 펼쳐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던 되었다. 손가락 조각을 보고 호기심에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고 싶은 손가락 하나를 물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크기를 이리~저리~ 재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리쿵~저러쿵~ 손의 옛 기억을 풀어내었다. 그러다 귀가 호강하는 날이면 나도 감춰있던 나의 못생긴 손 이야기도 꺼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더 깊은 상처 혹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 어쩌면 이 과정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와도 같은데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석고로 뜬 자신의 손가락 한 마디를 작은 기념비로 만들어 주고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손을 만나다 보면 손가락 하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테이블 작가-임폴

Part 7

한길지역아동센터

하반기 3회차를 함께한 한길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9월 건립되었으며, 상봉2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이 방과 후에 다수 이용하고 있다. 서핑, 미술, 영어, 수학, 원예치료, 독서지도, 멘토링 상담, 문화 체험 등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종사자 모두가 사랑으로 지도하고 있다.

- 진행 일자** 2021년 11월 19일 14:00 ~ 17:00
- 진행 장소** 한길지역아동센터
- 진행 대상** 한길지역아동센터, 파란나라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 명
- 진행 프로그램** 부치지 않을 편지, 병맛캐리, 시간헤나 등



현장 INTERVIEW

- 한길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참여자

Q. 오늘 <명랑중앙> 프로그램, 어땠나요?

A.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동화책 읽고 시 쓰기가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써본 점이 좋았어요. 하는 내내 웃음이 가득했어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Q. 오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A. 제 기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속 시원해' 라는 글자를 골라서 만들었어요. 시험을 못봐서 답답했는데 활동을 하고 나니 시원해졌어요.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진행 프로그램

부치지 않을 편지



전달할 수 없는 마음,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 진짜 속마음을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써내려 갈 필요가 있다. 아니 한 번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이 비록 발신자의 잔잔한 생활에 던져진 커다란 돌이 될지라도, 부치지 않을 편지는 정말 부치지 않을 편지이다. 전달되지 않을 속마음. 그러나 나는 잘 생각하고 정리해 봐야 할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부치지 않을 편지를 쓰며 나를 더 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진심, 정성을 담은 부치지 않을 편지"

진심과 정성 가득한 편지를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써보는 것이 '부치지 않을 편지' 작업의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했다.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동시를 고르라고 한 뒤 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편지를 쓰게 하면 좋을지, 어떤 답장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새 방법이었다. 그렇게 20명 이상의 아이들과 만났다. 역시나 작업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나는 뜻밖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거침없이 표현할 줄 알고, 동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말할 줄 알았다. 끝나고 나니 아이들과 에너지를 겨루느라 진이 빠졌지만, 다음날까지도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아이들의 이름에 마음이 요동쳤다. 아이들을 옆에 두고 얘기하고 이름 불렀던 이번 작업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테이블 작가 - 심민선



병맛캐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작가는 이야기와 얼굴에서 얻은 인상을 캐리커처로 그려 드립니다.

시간헤나

당신이 바라는 날짜를 손목시계 차는 자리에 헤나 문신해 드립니다.
헤나 잉크가 손목에 남아있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지정한 그날을 더 기억하거나,
기다릴 것입니다.
헤나는 며칠 후 지워집니다. 그러나 당신 한명 한명의 이 날들은 쌓이고 쌓여
거대한 시간의 흐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Part 8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명랑중랑>의 마지막 회차를 함께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특성화 도서관이다. 어린이의 시각에 맞춘 시설과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취학 전 천 권 읽기', '초등 천 권 읽기'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중랑구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 진행 일자** 2021년 11월 20일 10:30 ~ 16:30
- 진행 장소**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진행 대상**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회원 40여 명
- 진행 프로그램** 라디오 줄리, 토닥여행사, 당신을 부탁하는 설명서 등

현장 INTERVIEW

-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참여자

Q. 프로그램을 하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A.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함께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진행 프로그램

라디오 줄리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 봐요.
라디오 DJ줄리에게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DJ줄리가 추천하는 음악까지 같이 들어봐요!



"음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



많은 아이와 소통하며 따뜻함과 순수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낯설어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모든 아이가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으며 교감도 되었고요. 제가 추천해주는 음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은 경험을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작가 - 김지혜



당신을 부탁하는 설명서

참여자에게 작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대화를 이어간다.
 작가가 느끼게 된 참여자의 꼭 맞는 온도와 소리, 향기를 '당신의 설명서'에 남긴다. '당신의 설명서'에는 자신을 표현해줄 색과 도형이 들어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들이 덧붙여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참여자에게 전달된 '당신의 설명서'는 자신이 가장 이해받고 싶은 이에게 전달된다.



토닥여행사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행지도를 선물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거나 말랑해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당신만의 여행지를 추천해주시면 그곳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해 드려요. 먼 곳이어도 가까운 곳이어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힘이 되었던 곳을 알려주세요.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종랑> 결과자료집

발행처 | 중랑문화재단

발행인 | 표재순

발행일 | 2021년 12월

편집인 | 유경애

총괄책임 | 장보순

기획·운영 | 중랑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
김수미, 정유리, 송다원, 김보라

편집·디자인 | 손손

중랑문화재단

주소 | 0208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이노시티 C동 B2F

전화 | 02-3407-6500

팩스 | 02-2208-0030

홈페이지 | www.jnfac.or.kr

SNS | https://www.instagram.com/jnfac_official

https://blog.naver.com/jnfac_official

<https://www.youtube.com/중랑문화재단>

이 책은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종랑> 결과를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중랑문화재단에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랑문화재단 2021

ISBN 979-11-976866-5-8

ISBN 979-11-976866-4-1 (세트)